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음 12월 27일) 제198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평화’ 평창올림픽 광파르... 전북도 응원 동참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구촌 스포츠 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성공 개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사진)는 지난 9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최된 개막식에 동참했다.

송 지사는 지난 6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릴레이 응원에 동참했다. 또 응원 메시지에서 “2018 평창 동계

송 지사, 응원 메시지서 “스포츠 통해 새지평 열길”
전북선수단 7명 출전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고 올림픽 정신을 담은 평화올림픽이므로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무대에서 세계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관 3,395매를 구입해 저소득층 및 도정발전 기여자,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로 지급, 단체 관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를 운영, 수송, 식사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7일 전주 삼천동 국립 박물관에서 5톤 차량 2대를 준비해 평창 동계올림픽 라이브 무대를 설치해 올림픽의 모든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22일 평창에서 전북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관 및 문화공연, 특산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글로벌 문화관광 전주로”

김승수 전주시장이 처음으로 팀장급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비전들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9일 김승수 시장과 박순종 부시장, 완산·덕진 덕진구청장, 국·소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500여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2018년도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문화특별시 추진 △전주형 동내복지 정착 △글로벌 관광도시 수용태세 개선 △한옥마을 명소화 추진 △전주형 주거복지 플랜 추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 △창년일자리 활성화 계획 등 각자 맡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3년 7개월여 동안 최장기 시내버스 파업 해결과 항공대대·전주교도소 이전 등 장기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2017 FIFA U-20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 도시경쟁력을 측정하는 정부의 ‘지자체 생산성 평가 전국 시 단위 1위 등 성과를 창출해온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 각종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 확대간부회의서 시민 삶의 도시 품격 향상 시정 비전·목표 등 공유

확대간부회의는 국장과 과장, 소장 등 부서장 이외에 팀장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분청·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회의와 오후 양 구청과 33개동과 동장 및 팀장이 참여하는 회의 등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이날 강점인 문화를 바탕으로 전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겠다는 시정 비전과 △찬란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활기찬 전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강화 △조화로운 전주, 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 △따뜻한 전주, 가장 인간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 시정 4대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주 문화특별시의 성공적 추진 △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 △역사문화도시 4대 사업 △첨단·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 △전주형 대표 복지플랜 등 21개 핵심전략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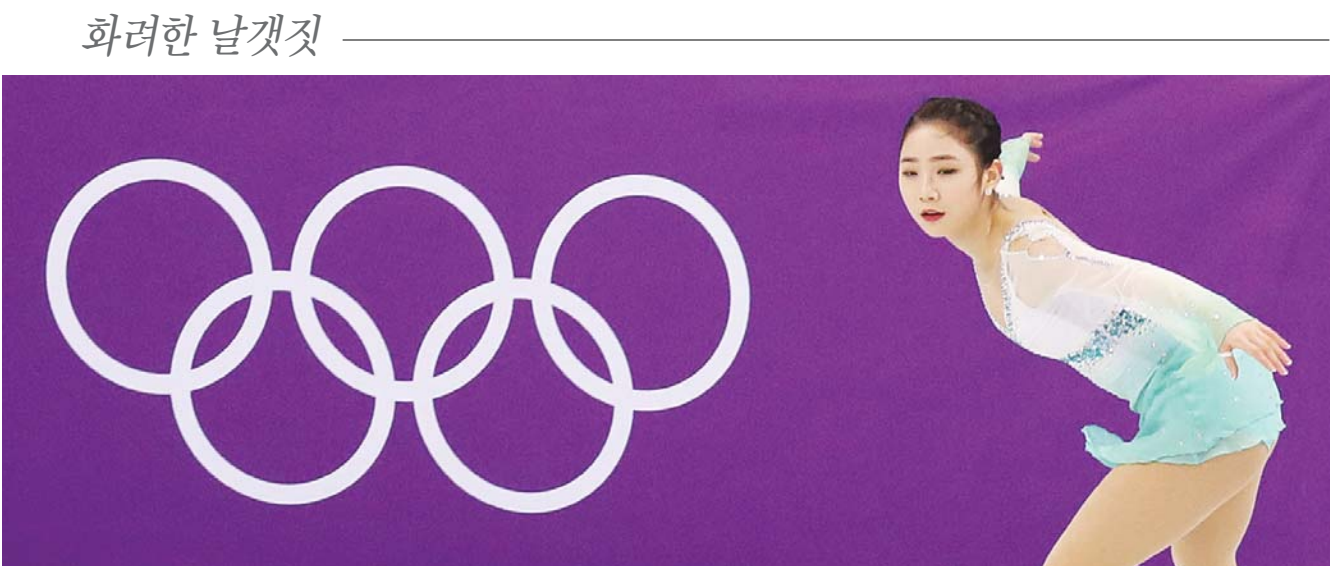
각 부서장과 팀장들도 △인권 프로젝트 △국제안전도시 공인 △전주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집약된 각 부서별 핵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역동적으로 추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시기로 진입했다. 1천만 관광객과 톤리플래닛 아시아 문화관광 3대 도시,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정부의 생산성 평가 시 단위 1위 등 많은 객관적 지수들이 전주를 달고 있다. 전주는 이제 다른 도시에 끌려가는 도시가 아니고 끌고 가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됐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직사회의 사명감과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다. 우리가 시대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주체라는 각오로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은빛 설원에서 벌어지는 지구촌 대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모저모



11일 오후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피겨 스케이팅 팀이벤트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경기. 최다빈이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클린 연기’ ... 최다빈, 피겨 쇼트프로그램 개인 최고점 65.73



기술 37.16 · 예술 28.57... 트리플 플립 · 더블 악셀도 성공적

최다빈(18)이 개인 최고점을 경신했다. 11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팀이벤트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65.73점(기술 37.16+예술 28.57)을 받았다.

클린 연기를 펼친 최다빈은 개인 최고점(62.66점)을 뛰어넘었다. 2그룹 첫 번째로 나온 최다빈은 ‘파파 캔 유 히어 미’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실수 없이 성공했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레벨 4),

플라이 카멜 스프(레벨 4)를 거쳐 연달아 단독 점프를 수행했다. 최다빈은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도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과제인 스텝스퀀스와 레이백 스프에서도 레벨 4를 받았다. 실수 없이 최고의 연기를 한 최다빈은 경기 후 미소를 지으며 주목을 끌곤 쥐었다. /뉴시스

최다빈은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서 10위에 오르며 평창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이 팀이벤트에도 출전하면서 이날 경기에 나섰다.

팀이벤트는 10개국 이 치르는 단체전이다. 각 나라의 남녀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선수들이 경기를 한 뒤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페어와 남녀싱글, 아이스댄스 쇼트 결과 한국은 8점을 확보, 10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전북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13일부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북도 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는 사람은 전북선거위원회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타

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위 홈페이지(http://infom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北 김정은 방북 초청 관련... “여건 만드자”

13면 - ‘불굴의 오독이’ 임효준,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 첫 출



날마다 새 봄 날마다 새 날

이제 우리에게 새 날이 열릴 것입니다.
봄도 그냥 봄이 아닌 새 봄이 올 것입니다.
전북교육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
배움과 나눔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으로 더 새로워지는 교육.

앞으로 여러분이 지켜보실 2018년 전북교육의 모습입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조성,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